기아차, 4세대 카니발 렌더링 이미지 공개

‘웅장한 볼륨감’ 눈길…대형 SUV 고객 공략

6년 만에 선보이는 4세대 모델
강렬하고 역동적 디자인 극대화
전형적인 미니밴 탈피…완성도↑

기아차가 18일 공개한 4세대 카니발의 외장 렌더링 이미지. 웅장한 건축물의 조형에서 느껴지는 강렬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조화를 디자인했다. 사진제공 | 기아차

기아차가 ‘아빠들의 로망’인 미니밴 신형 카니발의 외장 렌더링 이미지를 18일 공개했다. 카니발은 1998년 처음 출시된 이후 전 세계에서 누적 200만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 셀링 모델이자 기아차를 대표하는 미니밴이다.

신형 카니발은 2014년 3세대 이후 무려 6년 만에 선보이는 4세대 모델이다. 다른 차종보다 신차 출시 주기가 길었던 이유는 카니발의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이다. 4세대 신형 카니발은 기존 미니밴과 차별화된 자신감을 담아 전체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외장 디자인 콘셉트는 ‘웅장한 볼륨감(Grand Volume)’이다. 독창적이고 웅장한 건축물의 조형에서 느껴지는 강렬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조화를 기반으로 신형 카니발을 디자인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균형 잡힌 무대 퍼포먼스를 모티브로 완성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박자와 리듬을 형상화한 헤드램프 등을 통해 신형 카니발 전면부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헤드램프부터 리어램프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속도감이 느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도 신형 카니발의 새로운 매력 요소다.

기아차 관계자는 “과감한 시도를 통해 전형적인 미니밴에서 벗어난 새로운 디자인으로 신형 카니발을 완성했다”며, “기존 고객층을 넘어 대형 SUV에 관심을 갖는 고객들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혼 여성을 위한 ‘제1회 미시즈 코리아’ 열린다

“내외면 모두 아름다운 미인 선발”
여성의 지위향상·자선활동 펼쳐

기혼 여성에게 다시금 빛나는 순간을 선사할 ‘제1회 미시즈 코리아(Mrs. Korea)’가 월드대회로부터 공식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1996년 시작한 미시즈 부문 세계 1위의 독보적인 월드대회인 미시즈 글로브와 미시즈 글로브 클래식의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대회이다. 월드대회의 취지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고수한다. 45세 이하의 미시즈 글로브와 46세 이상의 미시즈 글로브 클래식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 자선활동, 기금모금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시즈 코리아는 기혼자 및 결혼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열리며 미시즈 글로브와 미시즈 글로브 클래식에 출전할 한국 대표를 선발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8월 6일 예선, 8월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결선이 열린다. 대회 시작에 앞서 선발대회를 통한 수익금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고, 뜻을 함께하는 참가자와 함께 자선활동을 하기로 했다.

‘제1회 미시즈 코리아’ 공식 포스터.

김현중 미시즈 코리아 조직위원장은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선발대회를 넘어 여성, 청소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사업에 동참하며 외면과 내면이 모두 아름다운 진정한 미인을 선발하는 대회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항공사, 올해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만료되는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항공사 모두 일반회원 기준 10년으로 대한항공은 연말, 아시아나항공은 1월1일에 매년 순차적으로 기한이 끝난 마일리지 사용을 종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항항공편이 대폭 감소하면서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끝나는 상황이 발생해 문제가 되어 왔다. 이번 연장조치로 대한항공은 2010년 적립된 마일리지가 2021년 12월31일로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10년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년 늦춰졌다.

김재범 기자

첨단 디지털 ‘무절개 임플란트’…치과 선택에 신중 기해야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선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심한 충치나 외상 등으로 인해 치아를 상실하게 된다면 임플란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주로 없어진 치아를 대신하기 위해 무언가를 씌우거나 걸어야 하는 방식을 적용해 주변 치아에 침습적이고 더 많은 보철물을 걸쳐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흡사한 저작력을 기반으로 ‘치의학의 신기원’이라 불리고 있다.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의 자리에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티타늄을 잇몸에 식립하는 시술로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해 노년층은 물론 젊은층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다.

최근에는 3D 컴퓨터 모의 시술 과정으로 최적의 시술 방법을 결정하고 임플란트 식립 유도장치 가이드를 제작해 최소절개 시술이 가능한 ‘무절개임플란트’가 선호되고 있다. 첨단 디지털 시술법으로 통증과 출혈, 붓기가 적다는 특징을 지녀 잇몸 회복이 빠르며 치료 기간도 기존 임플란트에 비해 단축시킬 수 있다.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개당 5~10분 정도 소요되며 마취 부위도 적어 마취량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잇몸을 절개하는 외과적 시술이 동반돼 야기되는 출혈, 감염 등의 부담과 치료 기간이 길어져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건이 맞는다면 무절개임플란트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무절개임플란트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잇몸이 충분해야 한다. 치아를 상실하면 잇몸이 좁아지게 된다. 잇몸이 없으면 입천장에서 잇몸을 떼어내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잇몸이 충분하다면 임플란트가 뼈에 고정되는 고정력이 확보돼야 하며 뼈의 단단한 정도가 부족하다면 무절개 가이드 임플란트를 한 후 절개 후에 잇몸으로 임플란트를 덮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절개임플란트 시에는 치아와 턱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확성 및 정밀성을 보유한 3D 입체 CT 촬영으로 임플란트 시술법을 결정하고 시술 후에도 적절한 사후관리도 지원돼야 한다. 시술 후 꾸준한 사후관리가 임플란트 식립 후 장기적인 사용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무절개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치과 선택에도 신중해야 한다. 과잉진료가 없고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려 무절개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저선량 CT vatech와 같은 첨단 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용순 평택 서울본치과 원장

날씨와 생활

19일(금)

지역	강수 확률(오전/오후)	최저	최고
서울	30/0	20	30
인천	30/0	19	27
수원	30/0	20	29
춘천	30/20	20	29
강릉	80/80	22	22
청주	20/60	20	29
대전	20/60	19	29
전주	20/0	19	29
광주	30/0	19	29
대구	30/20	19	29
울산	60/20	18	26
부산	60/20	19	26
창원	60/20	19	27
제주	60/0	20	25

해뜸 05:11 해짐 19:56 달뜸 03:36 달짐 18:01

산 날씨

북한산	18/31	내장산	19/28
설악산	19/21	무등산	19/29
오대산	20/29	주왕산	16/27
속리산	17/28	지리산	19/29
계룡산	19/29	한라산	20/25

바다 날씨

인천송도	19/27	안면도 꽃지	19/28
제부도	19/29	변산반도	19/27
경포대	20/22	거문도	19/28
속초	19/21	해운대	19/26
대천	19/29	제주도	20/25

미세먼지

서울	18	좋음	대전	20	좋음
부산	10	좋음	경기	22	좋음
대구	17	좋음	강원	28	좋음
인천	19	좋음	전북	23	좋음
광주	12	좋음	제주	12	좋음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354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경제산업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19일(금) 음력: 4월 28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싸늘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쾌청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진눈깨비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여우비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먹구름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파도
상대방과 완전히 의견과 방향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이럴 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지금의 기운은 쇠하여 있다. 헛된 고집을 버리고 친애와 협조에 마음을 쓸 일이다. 오늘은 뱀날이다. 쥐띠는 뱀날을 맞이하면 도전적이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운 또는 쿠데타의 기질을 갖게 된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책임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소가 뱀을 만나는 날이다. 화개가 지살을 만난 날이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호랑이가 뱀을 만나면 망신살이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자칫 망언이나 희롱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일만 커지게 된다. 가가호호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하지만 먹히지 않는다. 기다려라. 앞서거나 서두르지 말라. 오늘일을 내일로 미루어라.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욕구분출, 잠재력발휘의 날이고, 건강과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 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 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오늘은 겁살일이다. 서류상의 실수로 장래 압류도 들어올 수 있는 날이니 조심하라.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오늘은 뱀날이다. 뱀이 뱀을 만났으니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는 형상이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자제하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노랑 길방:길방 오늘의 마음:쾌청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비바람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무지개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노을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맑음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파도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오늘은 망신날이다. 망신이 좋게 작용하면 수익의 증대이다. 수익이 생겼다면 빨리 손을 떼고 그것을 지켜라.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의 그늘이 지므로 겉은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걱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사 초지일관의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가능한 한 먼 거리가 좋다.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친다. 계획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킴이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오늘은 겁살일이다. 욕심이 많은 날이다. 여성의 경우 남자 조심하라.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재미 본다. 오늘은 지살일이다.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루기 위한 출사이다. 움직여라.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오늘은 망신살에 원진, 귀문살이다. 망신일에는 실수를 자주한다. 서두르면 낭패본다. 기다려라.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오늘은 역마일이다. 지살과 역마의 만남이다. 움직이는 날이다.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면서 번다.